

중세 국어의 형태론

1. 품사의 통용 ★★★★★

단어의 형태가 같은데 여러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이는 현대 문법과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있었다.

① 즐겁다

- 예 人生 즐거본 쁘디 업고 - 형용사
- 현 人生 즐거운 뜻이 없고
- 예 便安을 즐겁거든 - 동사
- 현 편안을 즐거워하거든

② 똥다

- 예 꽃 똥코 여름 하느니 - 형용사
- 현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예 王이 좌시고 病이 똥호샤 - 동사
- 현 왕이 드시고 병이 좋아지시어

③ 새

- 예 이 나래 새를 맛보고 - 명사
- 현 이 날에 새것을 맛보고
- 예 새 구스리 나며 - 관형사
- 현 새 구슬이 나며
- 예 새 出家호 사르미니 - 부사
- 현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2. 자동사,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동사 ★★★

현대 국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동사가 드물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예 고본 곶 것고(곶+고) ④고운 곶(을) 꺾고 - 타동사
- 예 두 갈히 곶그니(곶+으니) ④두 칼이 꺾이니 - 자동사

- 예 미듭 안해 다 긴 모들 박그며(박+으며) ④매듭 안에 다 긴 뿔을 박으며 - 타동사
- 예 피해 살이 박거늘(박+거늘) ④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 자동사

3. 비통사적 합성어 ★★★★★

현대 국어에서도 물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졌다.

- 예 빌먹다(빌+먹-) ④빌어먹다 / 예 오르느리다(오르+느리-) ④오르내리다

㉮ 도랏다(동-+긋-) ㉮ 좋거나 꺾다 / ㉮ 죽살다(죽-+살-) ㉮ 죽고 살다

㉮ 밝취(밝-+취) ㉮ 박취

현대 국어에서 '박취'는 '밝취'였는데, 그 의미는 '눈이 밝은 취'였다.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라면 '불근취'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결합되었다.

4. '어'가 들어간 어미 vs '거'가 들어간 어미 (전자책에 없음) ★

'어'가 들어간 어미와 '거'가 들어간 어미는 서로 그 분포가 달랐다. '어'가 들어간 어미는 타동사 뒤에, '거'가 들어간 어미는 비타동사(자동사, 형용사) 뒤에 결합되었다.

'어'가 들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 어말 어미 '-어늘, -어든'

'거'가 들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거-', 어말 어미 '-거늘, -거든'

㉮ 아드를 나하늘(낳-+-아늘) ㉮ 아들을 낳거늘

그 어미 어엿비 너겨 노하 보내어늘(보내-+-어늘) ㉮ 그 어미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거늘

㉮ 시르미 더욱 깊거다(깊-+-거-+-다) ㉮ 시름이 더욱 깊었다.

우물 믈를 기러 가거늘(가-+-거늘) ㉮ 우물 물을 길어 가거늘

피해 가야 수머 잇거늘(잇-+-거늘) ㉮ 산에 가 숨어 잇거늘

5. 특이 처격(=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특이 처격'이라는 것은 형태는 '의, 의'로 관형격 조사와 같지만 사실은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부정 체언 뒤에 '의, 의'가 결합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관형격 조사는 부정 체언 뒤에 '스'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새벼리 나지(낮+인) 도드니 - 양성 모음 뒤

㉮ 셋별이 낮에 돋으니

㉮ 처서미(치섬+의) 훈 번 버리니 - 음성 모음 뒤

㉮ 처음에 한 번 버리니

6. 특이한 부사 파생법 (전자책에 없음)

동사나 형용사를 부사어로 쓰기 위해서는 접미사 '-이, -히'나 부사형 어미 '-게'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에 아무 것도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 빅브르 들과라

[직역] 배부르 들었다

[현대어 풀이] 배불리 들었다.

㉮ 하늘 버리 눈 갈 디니이다

[직역] 하늘 별이 눈 갈 떨어졌습니다

[현대어 풀이] 하늘 별이 눈 같이 떨어졌습니다.

7. 가, 고 ★★★

‘가, 고’는 현대 국어에 없는 보조사이다. 이는 의문 보조사로 체언 뒤에 바로 결합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으로 의문문을 만들려면 서술격 조사 ‘이다’를 활용해서 만든다(㉠이것은 네 책이니?).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보조사 ‘가, 고’만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네 책이니?’를 ‘이것은 네 책가?’라고 하는 것이다. 체언 뒤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이다!

판정 의문문에서는 ‘ㅏ’ 형이, 설명 의문문에서는 ‘ㅓ’ 형이 결합된다. 즉 ‘가’는 판정 의문문에서, ‘고’는 설명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향것가(향것+가) - 판정 의문문

㉡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상진인가?

㉢ 부테 누고(누+고) - 설명 의문문

㉣ 부처가 누구인가?

8. 체언의 교체 ★★★

현대 국어에서 체언은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뒤에 조사만 결합될 뿐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용언의 활용처럼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체언의 ‘곡용’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접속조사 ‘와’ 다음에는 기본형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서는 그 형태가 달라진다.

㉠ 모/무/느 → ㅁ기 (나모(㉡나무), 구무(㉢구멍), 불무(㉣풀무), 녀느(㉤여느, 다른 것))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접속조사 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나모도(나모+도) / 나모와(나모+와) ㉡나무도 / ㉡나무와	남기(남+이) / 남근(남+은) / 남꺄로(남+으 로) ㉡나무가 / ㉡나무는 / ㉡나무로
구무도(구무+도) / 구무마다(구무+마다) ㉢구멍도 / ㉢구멍마다	굶기(굶+이) / 굶근(굶+의) / 굶꺄(굶+을) ㉢구멍이 / ㉢구멍에 / ㉢구멍을
불무도(불무+도) ㉣풀무도	븨기(븨+이) / 븨근(븨+은) ㉣풀무가 / 풀무는
녀눗(녀느+ㅏ) ㉤여느의	년기(년+기) / 년꺄(년+을) ㉤여느가 / 여느를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나모, 구무, 불무, 녀느’의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기는 곡용을 보여준다. 즉 ‘나모~남’, ‘구무~굶’, ‘불무~븨’, ‘녀느~년’의 교체를 하는 것이다.

㉠ 불휘 기픈 남근(남+은) 비르매 아니 밀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남기(남+인) 모물 빼스바 뒷더니 ㉣나무에 몸을 께어 두더니

㉤ 그 남기(남+인) 虛空에 들이니 ㉥그 나무가 허공에 들리니

중세 국어의 통사론

1.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 (전자책에 없음)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이란,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형 어미처럼 쓰였다는 것이다. 만약, 만약 나온다면, 이는 <현대어 풀이>를 보고 충분히 풀 수 있다.

예 布施 ㅎ야도 그뵈 흔 조초 ㅎ야 뉘웃븐 므스물 아니호리라
 [직역] 보시하여도 그대의 한 좃아 하여 뉘우치는 마음을 (먹지) 아니하리라
 [현대어 풀이] 보시하여도 그대가 함(or 한 것)을 좃아 하여 뉘우치는 마음을 (먹지) 아니하리라

즉 명사형 어미가 와야할 자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온 것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2.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에 특이하게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었다. (전자책에 없음)

'나의 살던 고향은'이 잘못된 문장이라고 많이 배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살던 고향이'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고향이'가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중세 국어에 빈번했다. 즉,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가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 내 너의 깃구물 돕노니
 [직역] 내가 너의 기뻐함을 돕노니
 [현대어 풀이] 내가 내가 기뻐함을 도우니

예 舍衛國에 오실 찌기 須達의 지순 亭舍마다 드르시며
 [직역] 사위국에 오실 때에 수달의 지은 정사마다 들르시며
 [현대어 풀이] 사위국에 오실 때에 수달이 지은 정사마다 들르시며

3. 높임의 종결 어미 ★★★

높임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하라체	하야씨	하쇼셔
관정 의문문	1, 3인칭 간접 의문문	-ㄴ가, -르가	-스가	-잇가
	1, 3인칭 직접 의문문	-니아(녀), -리아(려)		
	2인칭	-ㄴ다, -르다		
설명 의문문	1, 3인칭 간접 의문문	-ㄴ고, -르고		-잇고
	1, 3인칭 직접 의문문	-니오(뇨), -리오(료)		
	2인칭	-ㄴ다, -르다		

위의 표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2인칭에서만 쓰이는 어미가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칸에 있는 '-ㄴ가, -르가' 등 '-ㄴ, -르'은 시제에 따라 다른 것이다. '-ㄴ'은 현재나 과거, '-르'은 미래를 의미한다.

(1) 의문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의문형 어미

앞서서는 의문 보조사 '가, 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가, 고'가 보조사였던 이유는 체언 뒤에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룰 것은 '어미'인데, 형태도 '가, 고'와 같고 구분되는 기준도 같다. 즉 의문사이 없는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 형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 형이 사용된다. 이는 아직 경상도 방언에 남아있다. (경상도 방언 ㉠ 밥 먹었나? 뭐 하노?)

예 西京은 편안훈가 묻훈가 - 판정 의문문

현 서경은 편안한가 못한가?

예 功德이 하녀(하-+-녀) 저그녀(적-+--(으)녀) - 판정 의문문

현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예 님금하 하나빌 미드니잇가(민-+--(으)니+-잇가) - 판정 의문문

현 임금이지어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예 어느 法으로 得흔노고(得흔-+-노고) - 설명 의문문(의문사: 어느)

현 어느 법으로 얻는가?

예 沙羅樹大王이 어디 겨시노(겨시-+-노) - 설명 의문문(의문사: 어디)

현 사라수대왕이 어디 계시느냐?

예 菩薩이 엇던 因緣으로 예 오시니잇고(오-+-시-+-니-+-잇고) - 설명 의문문(의문사: 엇던)

현 보살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2) 2인칭에만 사용되는 의문형 어미

2인칭에만 사용되는 어미 '-니다, -르다'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이 항상 형태가 그대로이다.

예 네 엇데 안다(알-+-니다) - 설명 의문문(의문사: 엇데)

현 네가 어찌 아느냐?

예 네 신히는다(흐-+-는다) 아니 흐는다(흐-+-는다) - 판정 의문문

현 너는 믿느냐 아니 믿느냐?

예 그되논 어늬 저귀 도라올다(돌-+-아+오-+-르다) - 설명 의문문(의문사: 어늬)

현 그대는 어느 때에 돌아올 것이냐?

4.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ᄃ-, -스-’이 존재하였다.

위 4개의 선어말 어미는 쓰임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평서문	의문문
ᄃ쇼셔체(가장 높은 등급)	-이-	-잇-
ᄃ라체(가장 낮은 등급)	X	X

예 弟子 | 드외아지이다(드외-+-아지...-이-...+-다) - ᄃ쇼셔체 평서문

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다 버리고 가시느니잇가(가-+-시-+-느-+-니-+-잇-+-가) - ᄃ쇼셔체 의문문

현 다 버리고 가십니까

5.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 말고도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예 네 아버 ᄃ마 주그니라(죽-+-(-으)니-+-다)

현 너의 아버가 이미 죽었다

위의 예문에서는 ‘ᄃ마(이미)’ 때문에 시제는 과거 시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런 표지가 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 아무런 표지가 오지 않는 경우 과거 시제를 의미할 때가 많았다.

매우 심화 개념

1. 인칭법,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

㉠ 인칭법 선어말 어미 ‘-오-’

인칭법 선어말 어미 ‘-오-’는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해 주는 선어말 어미이다. 즉 주어가 ‘나’, ‘우리’일 때 ‘-오-’가 들어간다. 위에서 배운 선어말 어미 ‘느, 더’와 합쳐지면 ‘노(느+오), 다(더+오)’가 되기도 한다.

예 내 그딧 말다히 호리니(ᄃ-+-오-+-리-+-니) - 주어: ‘나’

현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하리니

예 나도 이제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ᄃ노니(ᄃ-+-느-+-오-+-니) ᄃ뻘 가져 - 주어: ‘나’

현 나도 이제 너희 스승을 보고자 하니 함께 가자

㉡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

대상법 선어말 어미는 관형사절에서 나타나는 ‘-오-’이다. ‘-오-’가 나타나는 조건은 관형사절 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목적어, 부사어일 경우이다.

예 優墳王이 밍ᄃ론(밍ᄃ-+-오-+-ㄴ) 金像을 象에 신즈바 가더니 - 생략된 문장 성분: 목적어

현 우진왕이 만든 금상을 코기리에 실어 가더니

위의 문장에서 관형사절은 '優墳王이 밍ᄃ론(우진왕이 만든)'이다. 이 문장은 본래 '優墳王이 金像을 밍ᄃ다(우진왕이 금상을 만들다)'이므로 목적어 '金像을(금상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서술어에 '-오-'가 결합되었다. (만약 '-오-'가 없었다면 '밍ᄃ'이 되었을 것이다.) 목적어가 생략된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자.

예 八姦女 | 기론(긴-+-오-+-ㄴ) ㅅㅅ리 모즈랄씨 - 생략된 문장 성분: 목적어

현 팔채녀가 길은 ㅅㅅ이 모자라므로

위의 문장에서 관형사절은 '八姦女 | 기론(팔채녀가 길은)'이다. 이 문장은 본래 '八姦女 | ㅅㅅ를 긴다(팔채녀가 ㅅㅅ을 긴다)'이므로 목적어 'ㅅㅅ(ㅅㅅ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서술어에 '-오-'가 결합되었다. (만약 '-오-'가 결합되지 않았다면 '기론'이 되었을 것이다.) 부사어가 생략된 예를 살펴 보자.

예 부테 가지논(가-+-시-+-ㄴ-+-오-+-ㄴ) ㅅㅅ히 - 생략된 문장 성분: 부사어

현 부처가 가지는 땅이

위의 문장에서 관형사절은 '부테 가지논(부처가 가지는)'이다. 이 문장은 본래 '부테 ㅅㅅ히 가지다(부처가 땅에 가지다)'이므로 부사어 'ㅅㅅ히(땅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서술어에 '-오-'가 결합되었다. (만약 '-오-'가 결합되지 않았다면 '가지논'이 되었을 것이다.)

2. 선어말 어미의 화합

중세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가 2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더-+-오- = -다-

예 내 룡담ᄃ다라(룡담ᄃ-+-더-+-오-+-다) 현 내가 농담하였다.

② -거-+-오- = -가- or -과-

예 오늘사 스시 언과라(언-+-거-+-오-+-다) 현 오늘이야 틈을 얻었다.

위의 예문에서 '더+오+다', '거+오+다'의 '다'가 '라'가 되는 이유는 바로 밑에 나와 있다.

3. 'ㄷ' → 'ㄹ'의 교체

중세 국어에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ㄹ'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환경은 'ㄷ' 앞에 '과(거+오), 더, 리, 니, 오, 서술격 조사의 '이' 다음'이었다.

예 오늘사 스시 언과라(언-+-거-+-오-+-다) 현 오늘이야 틈을 얻었다

예 묻 마즌 이리 다 願ᄃ터 드외더라(드외-+-더-+-다) 현 맞지 않은 일이 모두 소원대로 되었다.

예 내 願을 아니 從ᄃ면 고줄 묻 어드리라(언-+-(으)리-+-다) 현 내가 소원을 따르지 않는다면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늣ᄃ니라(늣-+-ㄴ-+-니-+-다) 현 사람이 살면 죽음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늣ᄃ니라

예 내 ᄃ마 命終ᄃ호라(命終ᄃ-+-오-+-다) 현 내가 이미 죽었다.

예 二十八은 스물여들비라(스물여듭+-이라) 현 이십팔은 스물여덟이다.

4. '오'→'로'의 교체

선어말 어미 '-오-'는 서술격 조사의 '이' 뒤에서 '-로-'로 교체되었다.

㉮ 쓴 人生애 혼 病혼 모미로라(몸+-이-+-오-+-다) ㉯ 쓴 인생에 한 병든 몸이다.

위의 '-오-'는 앞의 서술격 조사의 '이' 때문에 '로'로 바뀌었다. 또한 참고로 '-오-'뒤의 '-다'는 '-오-' 때문에 '라'로 교체된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ㄷ'은 '과, 더, 리, 니, 오' 뒤에서 '르'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의 '내로라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의미이다. '내로라'의 어원을 따져보면 '나+-이-+-오-+-다'가 되는데, 이는 즉 '나이다, 나다'라는 뜻이다. 즉 '이 분야의 최고는 나다'라는 데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오-'가 '로'로 교체되어 현대 국어로 이어지고 있다.